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라! -AFA 회의를 다녀와서-

| 김형석 | 한농연 대외협력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농민”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태국에서 개최된 AFA(아시아농민협의회) 회의를 다녀왔다.

무척이나 긴 일정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의 삼우제가 끝난 바로 다음날 출국을 하는 것이라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한·아세안(ASEAN) FTA와 코앞으로 다가온 WTO 제6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농민단체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로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일정은 AFA의 제11차 상임집행위원회와 태국농기방문, 정부의 WTO 협상단과의 포럼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김기철 한농연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과 새농민회 회원이면서 코드라(KoDHRRA) 회장을 맡고 있는 윤상준씨, 통역을 담당할 이용철씨, 미얀마에서 통역으로 참가하는 선교사 황규민씨, 전한영 농림부 농업협상과 사무관 등 모두 6명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국은 10개국으로 한국, 태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 정회원 5개국, 일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준회원 5개국이 참가했다.

1) AFA:

Asia Farmers' Association for Sustainable Rural Dvelopment,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아시아농민협의회'

2) AsiaDHRRA:

Asian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Rural Asia, '아시아 농촌인력 자원개발 협력', AFA를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음.

3) KoDHRRA:

AsiaDHRRA의 한국 지부, 아시아 각 국에 지부가 있음

이곳에서 우리는 3일간 머물면서 첫날 'AFA Day' 기념식과 아시아드라(AsiaDHRRA)와 AFA 상임집행위원회 간담회를 가지고, 3월 1일인 둘째 날부터는 원래 목적인 '정부 농업협상가와 농민단체 간 대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당초에는 10개국 정부를 모두 초청했지만, 정부에서 응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아 한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4개국만 참가 했다. 각 정부 관료들은 자국의 농업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WTO 농업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에 만들어진 WTO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의 상세한 부분들까지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역시 정부 관료라서 그런지 말을 아꼈다.

각 정부의 발표가 끝난 후 우리는 각국 정부에 전달할

Part 1 정부와의 대화 - WTO농업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하라!

첫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방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춘부리 지역의 파타야로 우리에게 관광지로 익숙한 곳이다.

제안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WTO농업협상에 있어서 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민단체들과 대화하고 농촌개발을 위해 힘 써달라'는 NGO로써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에 불과하지만, 한농연과 일부 단체를 제외한 여타의 단체들이 그동안 정부에 대해 영향력이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었다.



AFA Day 기념식 행사에서 회원단체들이 가지고 온 각국의 쌀들을 섞으며 '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아시아 정부들에 대한 AFA의 제안서 요약>

1. 농촌지역이 성장발전 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개발하라.
2. WTO의 변화된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농민단체와 대화하고, 대응을 위한 자문과 협상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라.
3. WTO 농업협정문이 영향을 미칠 때 농민들을 적극 지원하라.
4. GATS의 쟁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농민단체와 NGO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Part 2 농기방문 - 산지 농민을 조직화 하자!

정부협상단과의 포럼을 마치고 우리는 치앙마이로 이동하기 위해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치앙마이의 치앙다오지역이었다. 이곳은 방콕에서 기차로는 10시간이 소요되는 태국에서도 가장 북쪽지역이다. 미얀마의 국경과 불과 1시간 남짓 거리이며, 지금도 국경지대에서는 미얀마 군대와 소규모 국지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곳에서의 일정은 현지 농기방문과, '킹스 프로젝트'라는 태국 왕의 핵심추진사업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리더쉽협약을 위한 WTO에 대한 소양교육과 상임집행위원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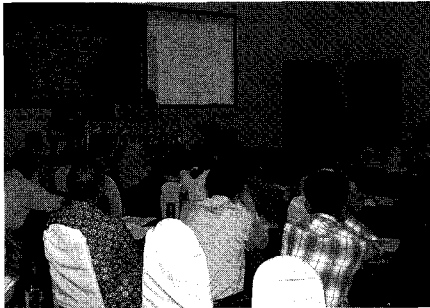
우리를 안내할 호스트 역할을 맡은 단체는 태국의 핵심 농민단체인 소코폴(SorKorPor)이라는 단체인데, 이 중에서 북쪽지역의 하부조직인 북쪽농민개발협의회(NFAD)라는 조직이었다. '깜난'이라는 이 조직의장이었는데, 치앙다오 지역의 12개 마을의 대표란다.

처음 AFA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그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정부관료 못지않은 막강한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쨌든 깜난의 안내로 우리는 2~3명씩 조를 나누어 1박 2일 동안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농가를 둘러볼 수 있었다. 김기철회장과 미얀마에서 온 조수아 황, 그리고 내가 한 개조가 되어서 들어간 마을은 마늘과 양파 고추 등 환금작물을 중심으로 경작을 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체 마을이 마늘을 생산하는데 모두 작목반 형태의 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웬만큼 농업이 발달한 우리도 현재 최대의 해결과제가 '어떻게 산지의 농민을 조직화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곳은 벌써 마을마다 조직화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록 품종이나 재배기술, 건조·저장 시설 등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조직화를 통해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이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조직화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효과를 가져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직접 마늘에서 수확작업을 하고 있는 농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을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1시간여 동안 마늘을 묶는 일을 도와주고 느낌만 간직하고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47개국의 WTO 협상단을 초청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제 11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한농연의 사업경과보고와 WTO 대응 방안에 대해 김기철 대외협력부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킹스 프로젝트 중 물 저장시스템을 비롯한 갖가지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Part 3. 킹스 프로젝트 - 물을 사수하라!

홈스테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2틀 동안은 그 나라의 자랑거리인 '킹스 프로젝트'를 둘러 보았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겠지만, 태국 역시 건기와 우기 밖에 없는 기후조건이라서 '건기에 수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농업생산성이 좌우된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건기에는 농사를 포기하고 우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태국은 달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이 직접 나서서 10가지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둘러본 것은 2가지로, 우리의 농업기반공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저수시설 관리 센터와 그것을 이용한 신선채소·화훼 생산·유통단지였다.

특히 신선채소·화훼 생산·유통단지는 킹스 프로젝트에 의해 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전국에 3군

데가 있다고 한다. 제법 규모가 큰 농가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비하면 규모와 자동화시스템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그들에게는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들의 생산·유통·성분검사 등 모든 시스템 기술을 대만에서 배워왔다고 한다. 비록 우리와 농산물 통상에 있어 경쟁자가 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경영인들과 기술진이 기여를 할 수 있었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들에게는 국책사업이기도 하니 우리의 농산물 시장에 보다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Part 4. 상임집행위원회 - 필리핀에 사무국 건설, 12월 홍콩으로!

마지막 일정으로 상임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상임집행



태국의 마늘저장 창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생산을 하고 있다.



신선채소 공동출하작업 설명을 듣고 있다.

위원회는 10개국의 회원 중 정회원만 참가하는데, 한농연을 비롯한 5개국이 정회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AFA 사무국 건설 △쌀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SRI) △WTO 제6차 각료회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AFA는 아시아드라(AsiaDHRRA)라는 조직에서 각국의 농민단체를 조직해서 만든 단체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의 자금과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AFA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체 사무국을 두고 아시아드라(AsiaDHRRA)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논의가 진행됐다.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이 사무국의 장소선정이었는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3국이 지난해부터 경합을 벌여오다 이번에 최종합의를 거쳐 필리핀에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3명의 사무직원을 두기로 했다. 또 2년 마다 있는 총회에서 재평가를 해 장소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식적인 사무국 운영과 2005년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WTO 제6차 각료회의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에서는 WTO 농업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4월 17일 '세계 농민의 날', 9월 한국에서 있는 'APEC 정상회의', 12월의 '세계 인권의 날' 등 각종 일정에 맞춰 캠페인과 우리의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아직까지 사무국이 없는데다, 제정적인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12월 각료회의에는 참가하기로 하고, 홍콩의 WTO반대 조직인 'HKPAAWTO'와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참가범위와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정하지 못했지만, 홍콩

AFA 회원현황		
	국가	단체
정회원	대한민국	KAFF(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필리핀	PAKISAMA
	태국	SorKorPor
	인도네시아	API
	대만	TWADA
준회원	베트남	VNFU
	캄보디아	FNN
	라오스	LCDA
	말레이시아	DHHRRA Network Malaysia
	일본	Ainoukai

에서 AFA총회를 개최한다든가 반세계화 포럼을 열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등의 활동들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한농연에서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회원국들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경해 열사가 외쳤던 'WTO에서 농업을 제외하라'라는 공통된 주장이 없이 WTO의 기본골격의 세부원칙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만으로는 공통된 요구사항을 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슈는 보조금과 관세감축인데,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동남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우리와는 입장이 상이하다. 우리 정부가 보조금분야에 대해서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과 공조를 하고, 관세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G33(개도국 그룹)과 공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면, 그들과 함께 WTO에 대응한 연대투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다음 회의 때까지 WTO의 기본골격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 오고, 다시 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한농연**